

목포시 고위공직자 집단연가 외유 물의

국·실장급 등 산악회원 22명 중국 관광...행정공백 초래 “연가 내고 취미활동 했을 뿐” 항변에 “부적절” 지적

목포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보직 간부공무원들이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무더기로 연가를 내고 외유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진혹을 사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M산악회 소속 회원 22명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관광을 다녀왔다. 이번 외유에는 도시건설국장장을 비롯해 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축행정과장, 원도 심사사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실국과장 다수가 17일과 20일 동시에 연가를 내고 동행했다.

이들은 동호회 친목도모 차원에서 연가를 내고 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보직을 맡은 간부들이 연수가 아닌 단순 외국여행을 떠나기 위해 작정을 하고 동시에 연가를 내면 서까지 행정 공백을 초래할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보직간부들의 경우 연가를 가더라도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 연락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해 공직기강이 해

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실국과장 가운데 일부는 “연가는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고 연가를 내고 취미활동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그런 것도 문제나”는 식으로 항변할 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M산악회에 연간 시민혈세 2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M산악회에는 이들 실국과장들을 포함해 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굵지 않다. 민선시내 초기 ‘목포시청내 하나회’로 오명을 떨쳤던 ‘정인 산악회’가 떠올라선다. 이 산악회는 민선 5기 시절까지도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오르내리면서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시청내 한 간부는 “누가 이끄느냐가 문제겠지만 청내서 말 쫓아 하는 사람들은 이 산악회에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한 공동체를 꿈꾸며 ‘제2의 하나회’로 명맥을 이어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없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M산악회 회장인 A과장은 “시 산악회의 경우 1990년대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외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계속 연기하다가 이번엔 다녀온 것”이라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전후해 다녀왔으며 주요 보직 간부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점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 4개 전통술 ‘대한민국 명품주’ 선정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 영광 ‘특한잔 소주’,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 영광 ‘특한잔 소주’.

영광 ‘특한잔 소주’
함평 ‘자희향 국화주’
진도 ‘38도 진도홍주’
광양 ‘백운 복분자주’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술을 선발하는 ‘2014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영광 대마주조 ‘특한잔 소주’ 등 남도 전통술 4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 제품은 ‘특한잔 소주’가 증류식 소주 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해 약·정주부문 함평 (유)자희자향의 ‘자희향 국화주’, 일반증류주 부문 진도 대대로 영농조합법인의 ‘38도 진도홍주’, 기타 증류주 부문 광양 (주)백운주조의 ‘백운 복분자주’가 각각 장려상을 차지했다. 영광 ‘특한잔 소주’는 대대로 구전돼온 보리술 제조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만든 술이다. 보리를 주원료로 한 증류식 소주로 빛깔이 맑고 깨끗하고 맛 또한 부드러우면서 강한 소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양 ‘백운 복분자주’는 백운산 맑은 물과 좋은 원재료로 빚어져 다른 복분자술과 달리 맛이 가볍고 부드러우

며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2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출고되는 ‘38도 진도홍주’는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정미꽃 수송장이 나는 술’이라고 극찬을 했던 제품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는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명품주를 선별·육성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품평회는 지난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지역 예심을 거쳐 122개 전통술이 출품됐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42명의 술 전문가들의 관능심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8개 주종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씩 총 32개 제품을 최종 선별했다. 시상식은 11월 12일 2014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소방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총력’

전남도 소방본부가 매년 증가하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도민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마다 전담강사를 지정해 학교, 관공서, 문화센터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각 시·군 읍면지역에 배치된 의용소방대원 1만1725명이 단계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치했다. 박정웅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주변에서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목격했을 때 119 신고와 동시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장성 ‘여성 취업박람회’ 성료

29일 장성을 흥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도전하는 여성! 내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장성군을 비롯한 나주시와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등 6개 시·군과 150개 구인업체가 참여했다. <장성군 제공>

전북 소식

전주서 내달 4일 배드민턴 국제대회

18개국 368명 출전 이용대·유연성 8일 사인회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주에 모여 자웅을 겨룬다. 전주시와 전북배드민턴협회는 11월 4~9일 전주 실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에서 ‘2014 전주 빅터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대만과 일본 등 18개국 36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빛 스매싱에도 도전한다. 대회는 남자단식과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모두 5개 종목에서 펼쳐지며 총상금은 5만달러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특히 이번 대회에는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인 이용대와 유연성을 비롯해 파 이사오마(대만), 카주코넨, 아마다가 주시(이상 일본)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전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용대·유연성 선수가 8일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사인회를 하고 바르셀로나와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박주봉(일본 대표팀 감독)·김동문(원광대 교수)이 호환인 팀과 레전드 경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전북 출신 선수들은 배드민턴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이 획득한 총 6개의 금메달 중 4개를 땀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中자매도시와 상생발전 모색

문동신 시장 등 방문단 연대시서 투자설명회도

군산시가 중국 자매결연 도시 등과 우호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나섰다. 문동신 시장 등 방문단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연대시와 위해서, 북경 등을 방문하고 있다. 방문단은 27일 교류 20주년을 맞은 연대시 기념행사에 참가해 그동안의 우호 교류 추진사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포괄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방문단은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28일 연대시 금해만 호텔에서 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대시 양러 부시장 등 투자국 20명, 연대시 기업인 70명, 관계자 1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문 시장은 연대시 노동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이나믹 군산 새만금’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방문단은 29일 위해시와 우호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0일 북경 인민일보 본사를 방문해 군산시의 문화관광 행사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가을축제 거리퍼레이드 연기

비 예보에 따라 7일로 연기 문화제·소싸움대회는 진행

‘2014 정읍시 가을축제 전야제 거리퍼레이드’ 행사가 연기된다. 정읍시는 “당초 31일 가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14 가을축제 전야제 거리퍼레이드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협의를 거쳐 11월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거리 퍼레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정읍

사 문화제와 민속 소싸움대회 등 다른 관련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다른 행사는 비가와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전국노래자랑 등은 우천시 국민체육센터로 옮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통합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정읍시 문화제와 정읍 평생학습 축제, 정읍차 페스티벌, 정읍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인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육,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8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